

미국

## 중국 제조업 석달째 위축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입력 2019.02.28 11:58

### 中 국가통계국, 2월 제조업 PMI 49.2로 하락...3년만에 최저 내달 5일 개막 전인대 전체회의 추가 부양책 나올지 주목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신규 수출 주문과 생산지수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내려갔다.

내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확실시되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주체의 투자와 소비심리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8일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로 시장 예상치(49.4%)는 물론 전달(49.5%)수준을 모두 밑돌았다. 2016년 2월(49%)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국 2위 커넥터업체 더룬전자의 광둥성 허산 공장 /광둥성=오광진 특파원

'세계의 공장'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2018년 12월 PMI가 49.4%를 기록하면서 진입한 위축국면에 석달째 머물고 있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확장, 그 이하면 위축을 의미한다.

중국 제조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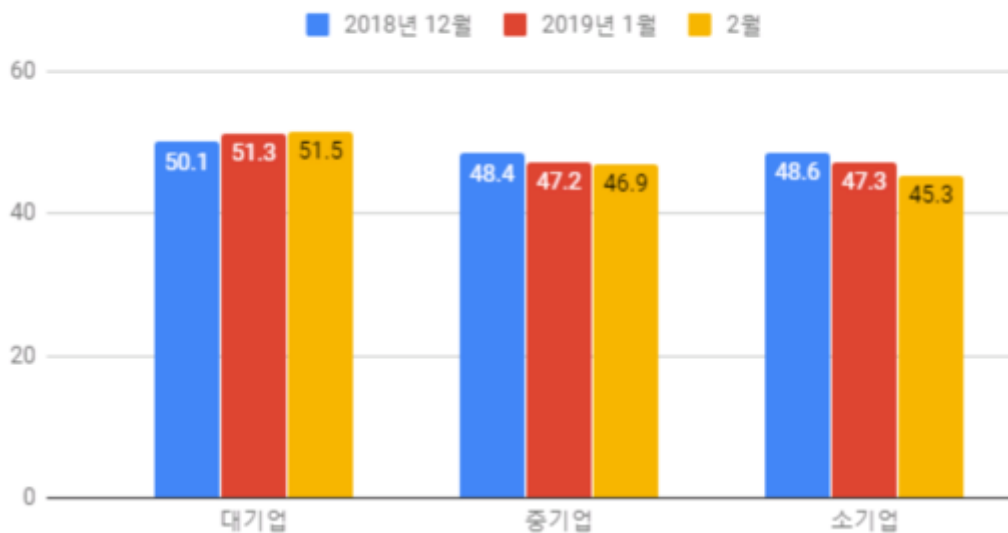
	제조업 PMI	신규 수출주문
2018년 5월	51.9	51.2
6월	51.5	49.8
7월	51.2	49.8
8월	51.3	49.4
9월	50.8	48
10월	50.2	46.9
11월	50	47
12월	49.4	46.6
2019년 1월	49.5	46.9
2월	49.2	45.2

자료:중국 국가통계국

특히 9개월 연속 위축국면에 빠진 신규 수출주문지수는 45.2%로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왔다. 생산지수도 2009년 1월 이후 최저수준인 49.5%로 하락했다. 작년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6.4%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흔들렸던 2009년 1분기(6.4%)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온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국유기업이 많은 대기업과 민영기업 중심인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 대기업의 제조업 PMI는 2월에 51.5%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면서 전달의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PMI는 각각 46.9%와 45.3%로 전달에 이어 동반 하락세를 지속했다.

중국 제조업 기업 규모별 PMI(% , 국가통계국)



비(非)제조업 PMI도 두달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54.3%로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건축 상무 활동지수가 59.2%로 전달 대비 하락폭이 1.7%포인트로 비교적 컸다. 비제조업 종업원 지수도 48.6%로 6

개월 연속 50을 밑돌아 인력 고용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감원을 서비스업이 벌충해줄 것이라는 기대의 현실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적이다. 제조업 종업원지수는 올해 2월까지 23개월 연속 50을 밑돌았다.

중국 정부는 새해들어 총 1%포인트의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지방정부 채권 조기 발행, 감세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진작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경기 개선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내달 5일 개막하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성장률 목표치를 2018년 6.5% 안팎에서 6%대 초반으로 낮추고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